

이종현 박사 콜로키움: “사회주의리얼리즘과 서정시”

서울대 러시아연구소는 지난 12월 15일 서울대 인문대학 3동 434호에서 이종현 박사(러시아국립인문대학 문학)를 모시고 콜로키움을 진행했다. 본 집담회에서 이종현 박사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3장 1절에 해당하는 '사회주의리얼리즘과 서정시'를 번역, 소개하였다. 발표자는 먼저 사회주의리얼리즘에 관한 원론적 개념 이해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개념의 유형학적 변화를 일별한 후, 사회주의리얼리즘의 여러 작품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을 설명하였다.



사회주의리얼리즘의 정의는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작가동맹 규약』에서 처음 정초된 이후 그 존속 기간 동안 중대한 변화를 겪는다. 이종현 박사는 사회주의리얼리즘의 원론적 개념, 그리고 그 유형학적 개념이 소비에트 시기에 쓰인 대다수의 작품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발레리 튜파의 개념을 소개한다. 튜파는 사회주의리얼리즘을 '내적 경계'와 '외적 경계'라는 개념 범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역사적 현상으로서 사회주의리얼리즘의 '내적 경계'는 문화적-역사

적 전체성의 관점에서 그려진다. 튜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사회주의리얼리즘을 정의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적 현상을 기술할 때 자칫 현상에 대한 옹호론으로 빠지기 쉽고, 결국 인식 주체는 대상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검증된 외재성을 충분히 지니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리얼리즘의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외적 경계'가 필요하다. 이 경계의 범위 안에서 '사회주의적 국가성'의 사상적 경향은 사회주의리얼리즘의 '핵'과 동일시되지 않으면서도 그 핵으로부터 분리되지도 않는 일종의 '원형질'을 구성한다. 사회주의리얼리즘의 '핵'은 묘사의 진실성과 역사적 구체성, 현실의 변증법적 특성, 노동자의 사상적 단련 등으로 구성되고 위 개념들은 본질상 시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간 중에서도 혁명적 발전의 결과로서의 미래가 사회주의리얼리즘 시간 구조에서 특권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 지점에서 발표자는 서정시 장르의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에트 연구자들은 소설과 달리 서정시가 현실을 그 역사적 발전의 시각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고 현실에서 미래를 예견하는 데 무능한 장르라고 여겼다. 가령 헤르만 예르몰라예프는 "몇몇 시인들의 시, 운문으로 된 드라마는 사회주의리얼리즘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장르들은 가장 관습적이고 사실주의적이지 못한 장르이며 삶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리얼리즘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서정시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한 논의들은 장르로서의 서정시의 외부자성을 강조하고 소비에트 문학의 내부로 서정시를 흡수하기 위해 그 개념적 범위를 재규정했다. 일례로 부하린은 개인성과 집단성, 리얼리즘적 특성과 시적 특성의 조화로운 구현인 사회주의리얼리즘이 옛 서정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사회주의리얼리즘적 서정시"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리얼리즘적 서정시에 대한 논의는 개념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문학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과거 독자적 장르로 여겨졌던 서정시는 소비에트 문학과 사회주의적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1930년대 초반 소비에트 비평계에서 서정시는 정치적·사회적 의미, 반개인주의적 특성, 장르적 혼종성을 부여받았다. 이종현 박사에 의하면, 서정시를 재의미화하려는 시도들에서 비평가들이 서정 장르들의 탄생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지향을 지닌 사회주의리얼리즘 서정시에 필수적인 문제, 즉 시인의 자기의식의 재개념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어 발표자는 시인론적 자의식이 사회주의리얼리즘의 다양한 메타텍스트와 메타시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개괄했다. 서정시의 서사화와 관련하여 그린베르크와 무스탄고바는 사회주의리얼리즘 서정시에서 시적 자아의 개성과 사회적·정치적 삶이 합치된다고 주장했다. 시인은 새로운 소비에트 현실을 체험하는 일종의 기관이며, 따라서 서정시가 서사화될 때에도 주관성은 객관적 현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규정되는 중요한 서정적 범주로서 보존된다는 것이다. 한편 예르몰라예프는 이것이 사회주의적 서정시의 특징을 주관성과 객관성의 조화로운 공존이라고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예르몰라예프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지침들의 모음에 불과하다는 단언은 역시 성급하며 이 문제의 검토를 위해서는 문학적이고 이론적인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자는 주장했다.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범주는 비평적 메타텍스트 및 메타시에서 표현된, 사회주의적 서정시에 대한 시인론적 사유를 조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발표자는 비평적 메타텍스트와 메타시에서 전개된 사회주의리얼리즘적 서정시의 논의를 소개했다. 먼저, 이반 비노그라도프는 객관성과 시인의 개성을 원칙적으로 동등한 범주로 간주하면서 서정시에서 주관성이 수행하는 본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비노그라도프에게 사회주의리얼리즘적 서정시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주변 삶과의 새로운 관계, 그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 새로운 평가의 구조"가 된다. 아론 구르시테인은 미래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새로운 서정적 자기의식을 강조하며, 사회주의리얼리즘 서정시를 '서정시'이게 만드는 것은 주관적 원칙, '사회주의리얼리즘적'이게 만드는 것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코르넬리 젤린스키 역시 서정시에서의 객관적 현실의 우위를 유지하며 서정시를 새로운 윤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서정적 주관성의 옹호론은 올가 베르골츠에게서 매우 극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창조적 의식의 개성뿐만 아니라 수용적 의식의 개성이 서정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변증법적 과정이 중요해진다.



러시아연구소 · 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이종현 박사에 따르면 소비에트 서정시에서 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메타텍스트에서는 서정적 주관성을 사회주의 사회에 유용한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성이 발견되는데, 그 역할이란 다음과 같다. 서정시는 현실에 대한 소비에트 인간의 태도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며, 사회주의 사회의 정신적 구조에서 일어난 변화를 포착하는 데 민감하다. 또한 서정시는 정치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윤리의 본질을 구성하며, 서정시의 서정적 암시성 덕분에 소비에트 시민은 주변 세계를 풍부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에트 서정시에서 서정적 원칙의 옹호론은 바로 서정시야말로 소비에트 인민이 혁명 이후의 사회주의적 현실과 관계 맺고 미래의 목적에 맞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입장으로 이어지고, 이때 주체의 창조적 행위는 미래에 도달할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적 가치들의 체계로서의 초텍스트의 전략에 따라 이뤄진다.



이어 이종현 박사는 레베데프-쿠마치의 메타시 작품 <우리나라의 집단적 초상화(Нашей страны коллективный портрет)>에 나타난 서정시의 정체성에 대한 재규정의 시도를 소개했다. 이 시에서 서정시인은 인민 예술의 대표자로 선출되는데, 이때 직업적 역량을 지닌 각각의 개인들은 하나의 의지에 의해 통솔되는 총체로 존재할 때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발표자는 이어지는 장에서 메타텍스트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리얼리즘적 메타시에서 서정시적 수단, 그중에서도 장르적 전략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폈다고 밝히면서 발표를 마쳤다.